



홍성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작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 **일시:** 2006년 11월 20일부터 (한정 수량이므로 서둘러 주십시오.)
- **장소:** 전국 주요 기독교서점 및 대형서점

찰스 콜슨 컬렉션

- 구성도서 러빙갓/백악관에서 감옥까지/이것이 교회다
세트정가 46,300원 → **세트할인가 37,000원**

이재철 청년 컬렉션

- 구성도서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참으로 신실하게
내게 있는 것/인간의 일생
세트정가 32,800원 → **세트할인가 26,200원**

루이스 베스트 컬렉션

- 구성도서 보급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보급판 고통의 문제/
보급판 순전한 기독교
세트정가 17,500원 → **세트할인가 14,000원**

대천덕 기초신앙 컬렉션

- 구성도서 대천덕 자서전/토지와 경제정의/나와 하나님/
우리과 하나님
세트정가 50,400원 → **세트할인가 40,300원**

오경준 성서연구 컬렉션

- 구성도서 성경에는 없다/성경에는 있다
세트정가 18,000원 → **세트할인가 14,400원**

루이스 사상 컬렉션

- 구성도서 시편 사색/네 가지 사랑/인간 폐지
세트정가 28,100원 → **세트할인가 22,400원**

이재철 기초신앙 컬렉션

- 구성도서 Audio새신자반/Audio성숙자반
세트정가 98,000원 → **세트할인가 78,400원**

김서택 설교론 컬렉션

- 구성도서 건축술로서의 강해설교/강해설교의 기초/강해설교와 목회
세트정가 37,000원 → **세트할인가 29,600원**

루이스 연구 컬렉션

- 구성도서 루이스 대 프로이트/루이스와 톨킨/나니아 나라를 찾아서
세트정가 39,800원 → **세트할인가 31,800원**

어린이 수채화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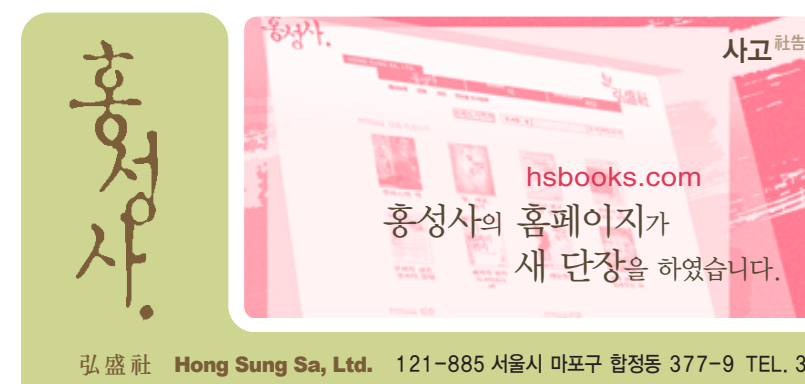
- 구성도서 켈트할머니의 선물/꼬꼬닭 모자가 어때서?
세트정가 23,000원 → **세트할인가 18,400원**

어린이 맥스 루케이도 컬렉션

- 구성도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토비아스의 우물/아주 특별한 모자
세트정가 19,500원 → **세트할인가 15,600원**

우리 아이 찾기도책

- 구성도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 주세요/어디서나 우리를 지켜 주세요
이 세상을 지켜 주세요
세트정가 19,500원 → **세트할인가 15,600원**



弘盛社 Hong Sung Sa, Ltd. 121-885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7-9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이 소식지는 무가지無廣告입니다.

2006년 11-12월 13호

오직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 장기려

‘한국의 슈바이처’ ‘살아 있는 성자’, ‘바보 의사’, ‘작은 예수’ 등으로 불리며 우리 길을 살다 간 성산 장기려 선생(1911-95)은 이면과 표면의 경계를 허문 사람이었다. 감출 것이 없는 삶을 살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있는 그대로를 드러냈다. 진실과 정직을 포기하느니 감옥행을 결심할 정도였다. 1950년대 초반, 장기려 선생은 수술 중에 출혈점을 잡지 못해 결국 환자를 사망시킨 일이 있었다. 장기려 선생은 경찰서에 가서 자기의 실수로 환자가 죽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경찰은 “면허증 있는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소, 할 수 없지 뭐” 하며 풀어 주었다. 선생의 이런 고백은 그의 생애에서 반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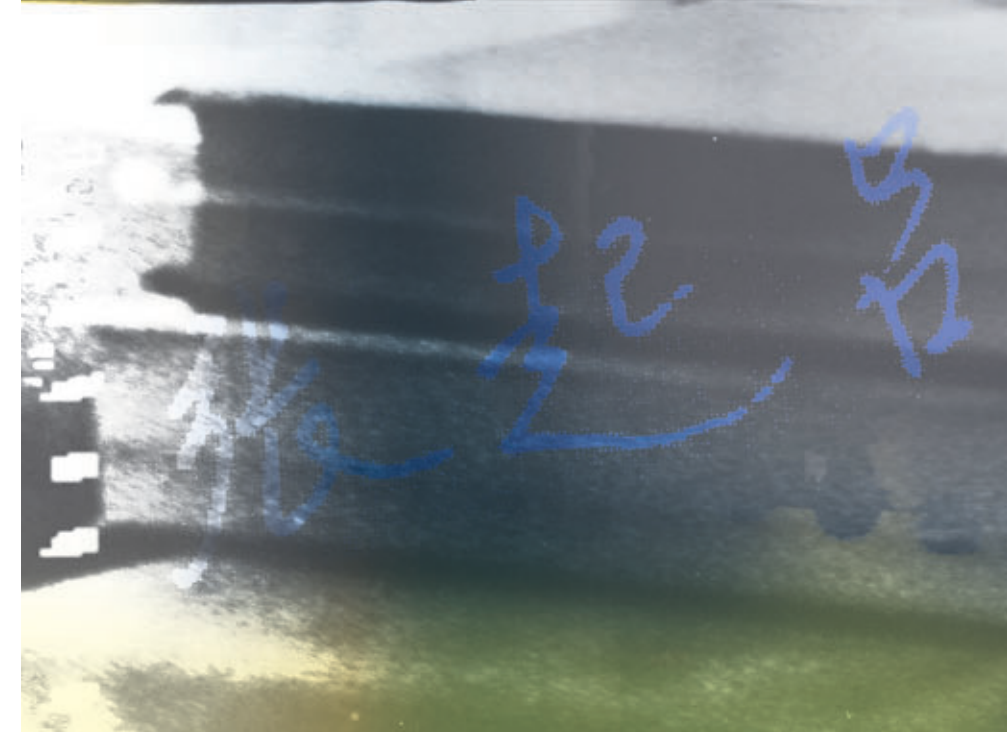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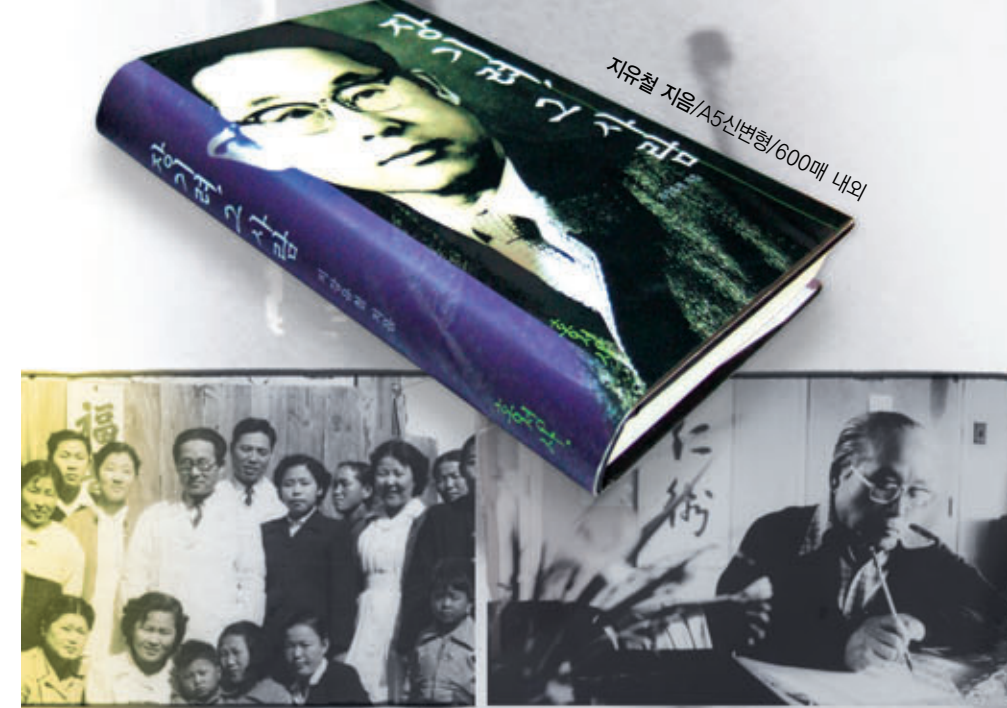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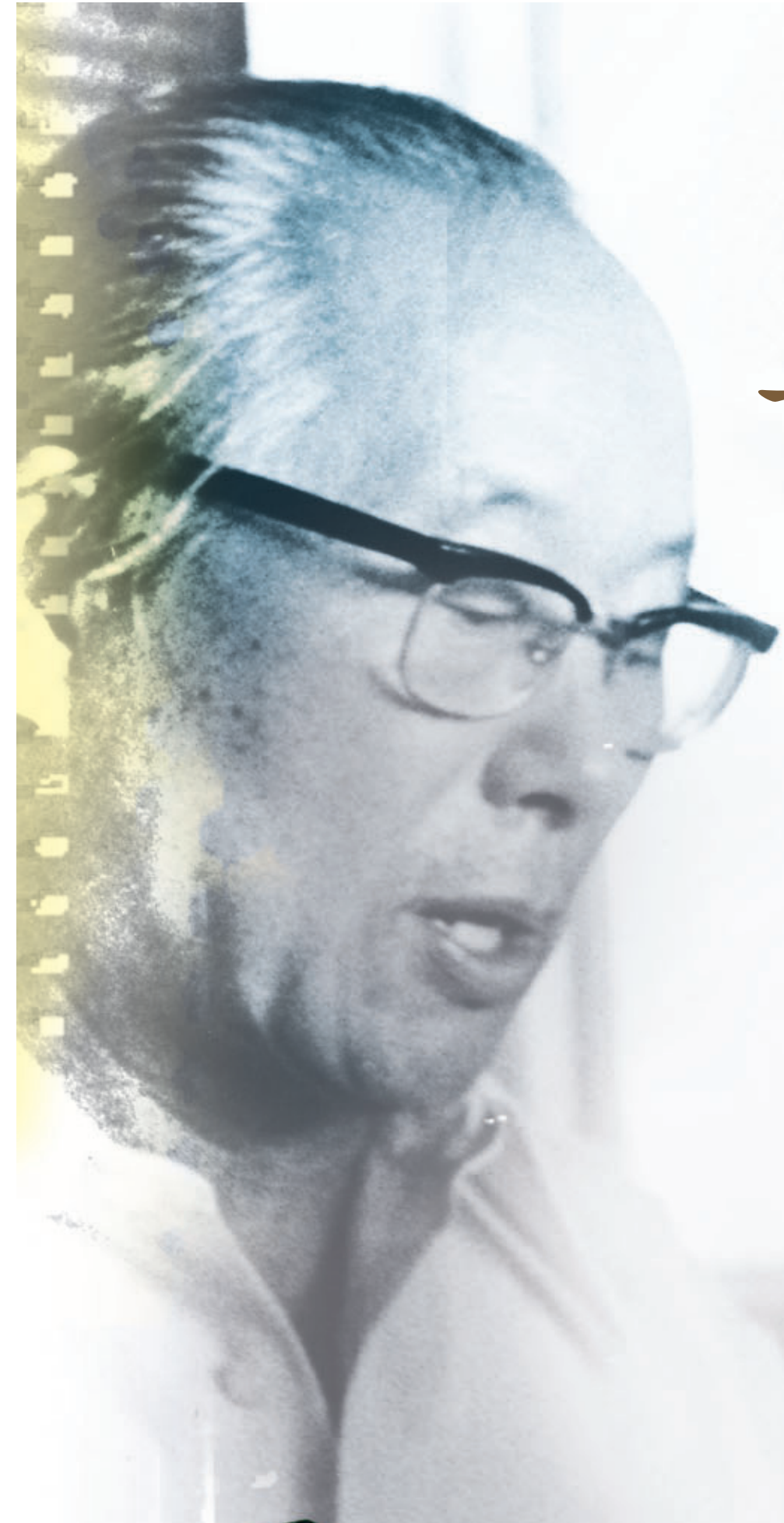
장기려 선생의 또 다른 인간됨은 어떤 사람을 거저, 대통령, 행려병자 등 그가 가진 권력, 돈,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생은 이복에서나 이남에서나, 그러니까 젊었을 때나 나이가 많았을 때를 막론하고 자기 집에 구걸 온 거지와 겸상을 했다. 오죽했으리 복환의 아내가 40년 만에 남편의 사진을 받아들고 자식들에게, “두 개 가지면 벌받는 줄 아시는지 이번이 거저에게 옷 벗어 주고 퍼렇게 얼어서 들어오셨어, 내가 부엌에서 끓는 것도 모르시곤 길 가는 거지들을 불러와서 겸상 차려 먹이신 양반”이라고 했겠는가. 차남 장가용의 집에 머물 때는 가정 일을 돕는 아주머니와 함께 밥상을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별한다고 불호령이 떨어졌다.

선생이 6·25전쟁 이후 우직스럽게 무료 병원을 계속한 것이나 부산대학교 뒤편 창고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행려병자들을 식구처럼 돌보았던 것은 그들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보험을 시작하기 10년 전에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했던 것, 그리고 몇 년 뒤 보사부 장관이 영세 사업자를 위한 의료보험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23만 명의 회원을 둔 의료보험조합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한 자별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선생에게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든 거저든 행려병자든 모두가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다. (중략)

장기려 선생은 약 500여 편의 글과 90여 편의 번역 원고를 남겼다. 거의 모두가 기독교적인 내용이다. 때문에 선생의 사회봉사에 깊이 매료되어 그를 더 깊이 알라 할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된다. 너무도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그의 글이 도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생은 다른 신앙을 가졌거나 무신론자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줄이를 찾기 위해 고심을 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도로서 어떻게 하면 유물론(무신론)자들에게 같이 이해될 수 있는 줄이(단어)는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말할 하면,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진리)을 표현하는 줄이는 무엇일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는? 하고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귀중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선생이 평생 이론 업적과 의사로서의 실천에 누구인가 감동을 받는 것은 그가 끊임없이 비기독교인들과 소통하려는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그는 스님, 신부님을 선생이 주회하는 부산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기꺼이 환영했다. 선생의 실천적인 사회봉사는 물론 자신이 글을 쓰는 목적이 비기독교인들을 섬기려는 것이었다. 자신의 묘비에 오직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써 달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하였지만, 선생으로 하여금 평생 남을 위해 봉사의 삶을 살게 만든 요인을 누가 어떤 각도에서 조명한다 해도 기독교 신앙이었다. 선생의 신앙을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에게, 또는 진보의 색채를 지닌 신앙인들에게 다소 불편한 요소가 없지 않다. 그러나 선생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다 주었던 의사였다. 그리고 선생은 그것을 줄 때 조건을 달지 않았다. 이것 받고 예수 믿어야 한다거나, 예수를 믿으니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준다든 식의 생각이 선생에게는 없었다. 선생의 말이 혹시 어떤 사람들을 거슬리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실천은 그런 사람까지도 끌어안았다. 행복은 때때로 이처럼 멋진 역설을 타고 우리 삶으로 들어온다.

기독교사상/2006년 11월호/지강유철



온고지신 溫故知新

가족이 함께 보는 성경 지식창고

《성경전과》 신·구약 전 2권

셀리나 헤이스팅스 글·에릭 토마스 그림/최원준 옮김/강창/질러

신약 152면/19,000원
구약 184면/24,000원

홍성사.

T.333-5161 F.333-5165 http://www.hsbooks.com

지면보존성

지면보존성 0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어두웠던 내 영혼에 새벽이 찾아오기까지

'해!', '이 밤을 지나 한!' ,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눈 오는 밤'... 1980년대 록과 발라드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가수 조영남 씨. 지난 2002년 목사안수를 받은 후 2003년 캐나다로 이주, 11개월 전부터는 토론토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조영남 목사가 자연치유에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송사)'를 빼고 자신의 변신 과정 전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17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시각장애인 강요식인원 '새빛요한의 집' 개관 축하 콘서트에 갔다.

여러나 팬층에 맞춰 지난 주말 잠시 귀국한 조영남 씨는 "그동안 간혹 왜 내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2년 전 A4 용지 300장 분량을 한 달 만에 썼다"며 "가장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변신과정을 처음 털어놓은 '내 아픔...' 연 1990년대 중반까지 잘 나갔던 그의 음악적 생애, 발표하는 글만은 언어와 성공하고, 영화관 사업도 번창하였지만 그는 어느날 술에 빠졌었다. "이제는 더 오를 곳 없는 내리막길이란 불안감과 정신의 방황이 계속되면서 음식은 못 먹으면서 술로 담배로 하루하루를 잊었다. 소외기계통에서 시작된 건강악화가 우울증, 불면증, 자살충동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런 어느 날 그는 한 검사원이 전해 준 요한복음 중 14의 평안을 되뇌게 하 주노라(14:27)는 말씀을 읽고 기적 같은 일깨움을 경험했다. 그 한 말에도 '마침내 자유이 온다', 머릿속에서 바글바글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997년 9월

의 일이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난 그가 가족은 물론 주변의 화조까지 새롭고 사랑스럽게 보였고, 초자연적인 열매된 웃음이 번져갔다. 늘 얼굴을 가리던 모자와 선글라스도 벗어 던졌다. 평안을 얻으려는 채취도 세 살 때 20kg 가까이 늘었고, 심지어 신발사이즈도 커졌다.

그는 1999년 아세아연합신학대 국제대학원에 진학했고, 2003년 캐나다로 이주했다. 국제교토대학교 원전학과 진석사신과 교수로, 종중예배인 공동체인 테미시페르산 하우스에서 봉사했다. 조 목사는 목회자의 길을 걸심하듯부터는 "세상 노래는 하지 않았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지금도 고집하지 않는다. "위로 없는 복음 전파는 두 가지처럼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헐적 회색에서 찬송가와 복음서가 사이에 자신의 '세상 노래'도 2~3곡씩은 부른다"고 했다.

"이런 사실들이 저를 가수로 보긴, 목사로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가수로서도 여전히 가슴에 살아 있지요. 대신 가수 때는 누가 노래를 해 보라 면 속으로 '감'..." 하면서 화를 냈는데, 이제는 노래하면면 벌떡 일어나 노래한다. 다, 주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지 아이지요."

그는 "목회는 이제 사제만이 아니라 '가수'로 치면 언더그라운드까지 같은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싫어도 프로그래밍 최선을 다하면 언더그라운드 가수들도 '빛'과 같은 삶이 교양하거나 넓고 깊고 하나님과의 뜻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2006년 8월 17일/김정자 기자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송사자 도서회원들을 위해 메달 발행하는 《꿈 회보》, 순박하면서도 크기의 회지를 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만든 재미있는 송사자 《송사자》 '메우니'에서 본 예수인 작품영웅으로 만날 수 있는 미술작품과 글 때문이었다. 8년이나 지났지만 시간은 돌아오고, 제국은 다른 작家的 작품 속에서 머물렀고 독자들과 만나고 의욕(대규모작업)과 미술재 현상조각과 구조의 끝없이 모여 한 편의 회화로 묶였다.

"미술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 세계에 얽매어 오 히려 타인의 작품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쏟을 기회가 적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랄 수 있는

크리스찬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 무심히 지나치던 일이 마음에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벌써 9년간 일했습니다만 매미집 송사자 《송사자》 '메우니'에서 메달 한 판씩의 글을 연례로 달하는 의미가 들어왔고, 제국은 다른 작家的 작품 속에서 머물렀고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80여 점에 이르는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 작품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는 글을 실어 주는 미술 해설서다. 흔히 미술 해설서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미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해 보는 것도 어렵고, 그 해설마저 미술 문헌에만 있고 이해하기엔 어려운 감이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등 을 소재로 한 작품 속에서든 복음의 메시지가 끝나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국 미술계 원로와 중진의 작품들과 함께 기독교 미술인들이 첫발을 내딛은 신예 작가들, 대학

원에서 수학 중인 청년 작가들의 작품까지 다양 하게 다루고 있다. 장르도 다양한 동화책이 비롯해 사랑화, 조각, 공예, 만화 디자인까지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송사)

작가들의 오랜 예술주의도와 로맨티즘 미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도 않으면서 거처 이해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대중의 계몽을 도모 문제'라는 지적이다. 오 교수는 책을 통해 독자들로 미술을 좀더 가까이서 느낄 기회를 제공한다.

"독자와 작가 사이를 연결하는 형상, 곧 이미지를 통한 소통의 길이 쉽지 않은 것은 형상이 늘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형상의 침묵은 때로는 소리나 자비보다 더 크고 심오한 작품과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나 결코 '모두에게'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존 러모트 '보는 눈'이 있는 분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미술의 길을 걷는 후배들에게는 선행자들이 이런 격려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체험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가득 미술 작가들에게는 말씀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도전과 과제를 그들의 행방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형상의 자유와 가능성 모두 잃어버릴 것 같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말씀의 논리로 말씀이 지니는 바에 따라서 생각이 뒤뉘 설 수 있는 형식의 세계가 기독교 미술인의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간(특고)/2006년 10월 19일/이영희 기자

예수 안에서 본 미술

The Lion Graphic Bible

그라픽 바이블

매년 성경 일독을 결심하코도 끝을 못낸 당신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림의 역동성과 생명력이 살아 숨쉬다!”

~개신대학원대학교 리영환 교수, 진로신학대학원고 임성빈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정경철 교수 추천!

제브 엘더슨 그림·마이크 매커스 글/김성철 옮김/전면 컬러/260면/19,000원

별책부록 (그라픽 바이블)
영문 텍스트 감정

T. 02-333-5161 F. 02-333-5165 <http://www.hsbooks.com>

동행net

.....LORD & ME

신앙생활에 엔돌핀을 돌게 했던 바로 그 카툰, 드디어 책으로 만나다!

2000년 문을 연 이래 하루 평균 700여 명이 조회하고 있는 동행넷 www.donghaeng.net의 감동적인 카툰과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실한 독상들이 담겨 있다.

정기료 글·그림/A5신변형/144면/양장/전면 컬러/8,900원

DVD 저자 인터뷰와 동행 플레이가 담긴 DVD 증정! *한정판*

입고완료
제작진행

위기의 아이들을 태운 에덴버스

협곡 어린 시절을 겪은 이가 후에 청소년들을 돕게 된 이야기

존 로빈슨은 가족에게 버림받아 언어없이 한 달째 굶주려 누렁이가 되고 모든 채취가능성을 절친한 친구와 함께 상실감과 기절감의 상투를 가슴에 담고 열네 살이던 나이에 소년원을 들락거리기 시작하여 슬퍼 마약, 갇힌들 속에서 위태로운 시절을 보낸다. 그러나 현실이 수막하는 절망 끝에 어머니 하나만을 만나고부터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리스도인이란 된 존은 에덴버스를 운전하여 가리로를 누비면서 불우한 가장정착을 잇거나 술과 약속에 빠져 방황하는 청소년들, 학대와 폭력, 기절감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청소년들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그들의 천구가 되어 사랑과 헌신을 다해 그 청소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삶의 지표를 잡아 주어 돌보아 준다.

"에덴 버스'는 도시 황산 산책의 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색의 대상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색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하늘을 따라 길을 걷으면서 봄이 새록새록 열릴 때를 청소년 시의 도화 찾아가는 사색이 되어야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단인 '에덴버스' 청소년 시제 공모를 할까? - 김성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수료자)

론 로빈슨 · 브랜든 슐코프 지음/전하영 옮김/민음의 글줄 236/A5신반형/232면/9,000원

예수 안에서 본 미술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 신적

심가지와 예수를 그래픽만 기독교 미술인가?

기독교 세계관과 믿음의 눈으로 미술의 힘과 그 한계에 대해 오랫동안 성찰해 온 조각가 오서승 교수의 그림 묵상집. 회화는 물론 조각, 건축, 디자인에 이르는 80여 점의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 작품들을 사진으로 싣고 "미술을 통해 접하는 은유화이자라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간결하고 쉬운 말"로 기독교 미술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큐레이터 입장에서 설명한다.

"텍스트 텍스트에 충실하면서도 작가 개인적인 이미지 고지 작업이 눈에 띄어 사회·문화적 배경과 작가의 신앙의 인생 경험 등을 엿볼 여지를 끌어 이끌어올린다. 작가와 관객 사이에 떨어진 벽을 깨우고 작품과 관객 사이에 거대한 벽을 허물어 준다." -성안재 목사(한국교회의 문화계 대표)

"우리나라에는 과연 어떤 크리스찬 미술이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면 당연히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저자는 자기의 주면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크리스찬 미술가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른다. 그의 글에는 현대인들이 읽어보면 그 무엇이 있다." -서철모 교수(연세대학교 교수 / 이승훈목회)

오서승 지음/민음의 글줄 237/A5신반형/208면/전면컬러/12,000원

사비네 발 드레스덴의 머리 테레사

삶의 무기였던 머리와 부끄럼 내려놓고 거리아이들의 어머니가 되 한 여인의 삶과 열정!

1925년 독일에서 태어난 사비네 발은 24세의 나이에도 이미머리, 자신의 폐어난 의복들 무기 삼아 악명강자의 결혼한다. 하지만 무와 화려함이 양초에 참된것을 줄 수 없음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떠난다. 순환 방향의 여정을 거쳐 결국 그리스도 앞에서 최침선 그녀는 거의의 청소년들을 위해 주님을 전하며 헌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녀의 삶과 열정이 담긴 이 책은 살아있는 이름을 모든 세대가 가지고 있는 비그리스도인 여성들과 청소년들, 알면서도 사랑을 전하는 데 머뭇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답군을 줄 것이다.

스텔렌 게른 지음/전영진 · 권영선 옮김/민음의 글줄 238/BBE반형/272면/양장/10,000원

빛, 색깔, 공기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

먼 길 건너는 아버지의 병상에 죽음이란 빛의 삶이 차오르고 있었다!

죽음 앞에 선 아버지는 암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아들보다 더하고 더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며 자신들을 기쁘게 맞이한다. 이 책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탐구하는 아버지 치열한 하루하루, 그 분부의 기록이다.

"..... 그것은 바에 있는 것과 다르다. 터나는 하늘과 땅 사이를 채워 주고 있는 공기를 보았어. 이 공기에 힘이 부처있지 공기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터나는 이것을 색깔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하늘과 땅을 채우고 있는 빛의 기쁨, 그것을 그려낸 거품!" -본문에서

김홍건
합동대학과 졸업 후 청호생명화학연구소에서 화학을 공부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역사를 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합동대총장과 생명과학연구소에서 강의하면서 현재 생명과학연구소 소장 재직 중이다. 평생동안 성경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김홍건의 목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 미마라 넉 앞길의 모습을 볼수도 있겠다. 기대하였다.

김홍건 지음/민음의 글줄 239/A5신반형/256면/7,800원

루이스와 잭 Jack: The Life of C. S. Lewis

'루이스에 관한 한 현존하는 최고의 전기'-타르쉬크 그래시(C.S. 루이스의 아들)

“잭이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비평가인 입장을 삼아낸 C.S. 루이스 교수는 시인, 문학평론가 그리고 노예기 회교로 변종가로 알려진 C.S. 루이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은 그를 ‘잭’이라고 불렀다. 형 휘넨은 쓴 동생한 일기와 방대한 문양의 『루이스가족 문서』 외에 다양한 자료들, 그리고 루이스와 자가자 나눈 20년간의 깊은 우정을 바탕으로 기록된 이 책에서 우리는 그의 밝다는 제자들의 단초를 엿보게 된다.

조지 셰이더 George Sayer
1934년 처음으로 개종자인 교수인 C.S. 루이스의 만나 스승과 제자로 인연을 맺은 조지 셰이더는 훗날 루이스와 친구 관계로 발전하여, 함께 신학하여 문학토론을 하고 가끔 침묵하는 동안에도 왕처럼 루이스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깊은 우정을 나눴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으며 1974년 은퇴할 때까지 루이스와의 오랜 친밀한 교류와 과정을 지냈다. 2005년 희고,

조지 셰이더 지음/충북출판사 옮김/A5신반형/512면/양장/19,000원

그래픽 바이블

매년 성경일독을 겸심하고,마태복음의 족보만 읽다 만 당신에게!

"수많은 쏟아져 나오는 출판물 속에서 생수 한 모금 쉽게 책을 발견한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다. 심지어 부담스러운 이들은 꼭 읽어 보라." -라팔리아(간디대학교 교수)

"흥미로 된 성경을 시작하기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것임을 감동 받을 수 있는 책이다. 성경의 이야기를 만화라는 문화개혁의 힘을 빌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에 전문성으로도 유용하다." -김성민(글로벌신학교 교수)

"성경 본문에 충실한 대사와 신학적 언어에 배려 있는 해설과 하나님의 구제적 사업들을 생생한 그림을 통해 제시한다." -장정철(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반백무름 (그래픽 바이블) 영문 텍스트 증정
제트 앤더슨 그림 마이클 맥커스 글/김성중 옮김/A4변형/260면/전면컬러/19,000원

동행.net ~ LGRO & ME 가장 소중한 그분과의 여행

신앙생활에 연동편을 돌려 봤다면 바로 그분, 드디어 책으로 만나!

2000년 문을 연 이래 지금까지 수십만의 사람들이 조회하고 있는 동행넷에 실렸던 카툰,מוש,음악,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있었던 작가 장귀로의 진실한 독자들이 각자 만나다 담겨 있다.

동행Net www.donghaeng.net을 다녀간 이들의 공통 일치치
"즐겁고 통쾌함 성장해, 기발한 재미, 아름다운 영상, 완벽하게 화석된 원문, 무엇보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없군요." -105
"여행을 갔다 왔다. 하나님께 가서 모습인 것 같이 보여줍니다." -윤송
"영화로 1학년 남학생에게요. 언젠나 이곳에 와서 감상하면 갑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
***저자 인터뷰와 동행 텔레비가 담긴 DVD 증정(반정량)**
장귀로 글 · 그림/A5신반형/144면/양장/전면컬러/9,900원